

웃둥 보살 빛둥 거사 <40>

구성 : 김홍인



낙타 가죽과 비싼 천

<백유경(百喻經)>

어떤 장사꾼이 장사하러 다니는 도중에 낙타가 갑자기 죽어 버렸다. 낙타 등에는 여러 가지 보물과 곱고 부드러운 천과 갖가지 물건이 많이 실려 있었다. 낙타가 죽자 상인은 곧 가죽을 벗긴 뒤 두 제자에게 말했다. "낙타 가죽을 잘 간수해 찢거나 썩게 하지 말라." 그 뒤에 비가 왔다. 두 제자는 어리석어 좋은 천들로 낙타 가죽을 덮었다. 천은 모두 썩어 허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어리석어 비싼 천으로 가치 없는 가죽을 덮었던 것이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도 그와 같다. 살생하지 않는 사람은 좋은 천에 비유한 것이고, 낙타 가죽은 재물에 비유한 것이며, 비가 와서 젖고 썩은 것은 방일함으로써 선행을 깨뜨리는 것에 비유한 것이다. 살생하지 않는 계율은 곧 부처님이 되는 최상의 묘한 씨앗이다. 그러나 그것을 두지는 않고 다만 재물로써 온갖 탐을 만들고 공양하면서, 그 근본을 버리고 끝을 취한다. 그러므로 수행하는 사람은 마땅히 알뜰한 마음으로 살생하지 않는 계율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옛 판화의 세계

고국으로 돌아가 법을 전하다 한국전법(還國傳法)



고국으로 돌아가 법을 전하다 (1673년 간행, 반각(半角) 27.2x18.0cm)

이 삽화는 의상 스님이 당나라에서의 공부를 모두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판각한 작품이다. 의상 스님(625-702)은 644년 황복사에서 승려가 된 후, 661년 해로로 당(唐) 나라에 가서 지엄(智嚴)의 문하에서 화엄종을 연구하고 670년 귀국했다. 676년(문무왕 16) 왕명에 따라 부석사(浮石寺)를 짓고 화엄학을 강론, 해동(海東) 화엄종의 창시자가 됐다. 전국에 10여 개의 화엄종 사찰을 건립했으며, 그의 문하에서 오진(悟眞)·지통(知通)·표훈(表訓)·진정(眞定)·진장(眞藏)·도웅(道融)·양원(良圓)·상원(相源)·능인(能仁)·의적(義寂) 등 '의상십철(義湘十哲)'이라 일컫는 고승들이 배출됐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선묘와 얽힌 애뜻한 사연과 승려로서의 철저한 수행정신을 느낄 수 있다. "그는 배를 타고 중국 등주에 도달해 어느 집에 이르자 그 집에서 의상 스님의 얼굴색이 매우 뛰어난 것을 보고 그 집 문하에 계속 머물게 했다. 그렇게 한 지가 오래되자 그 집의 소녀가 고운 옷을 입고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선묘라 했다. 그 소녀가 교태를 부리며 그를 유혹했으나 의상의 마음은 바위와 같아서 돌릴 수 없었다. 선묘는 의상 스님을 유혹해 보아도 대답을 받지 못하자 홀연히 도심이 일어나 발원했다. '세태생생에 목숨 바쳐 화상에게 귀의해 대승을 익히고 배우겠습니다.' 신라에 환국한 후 의상 스님의 법문을 들은 신라국의 왕이 흠모하고 존중해 전장(田莊·신라의 녹읍)과 노복을 보시했다. 이에 의상 스님은 말했다.

'우리 법은 높고 낮은 계급이 없이 평등하며 귀천이 같은 길을 걷습니다. 경에 여덟 가지 부정한 재물을 말하고 있는데 어찌 나에게 전장이 있어야 하며 어찌 노복이 있어야 하나인가? 빈도는 법계를 침으로 삼고 지어서 곡식이 어려기를 기다립니다. 법신의 혜명은 여기에 기대서 살아갑니다.' 의상은 강선하고 부지런히 수련해 세계를 장엄하고, 따뜻하고 서늘한 것을 가리지 않았으며, 오직 3의만을 갖고 물병과 발우 이외에는 한 번도 다른 물건이 있어 본적이 없었다." 이러한 의상 스님의 철저한 수행정신이 의상십철이라는 고승대렬들을 길러냈으며,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정신이 된 것이다. 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장)

시가 있는 도량 ■ 명상과 피어싱

가부좌 틀고 손바닥을 하늘로 펼친다	투둑 툇툇에 떨어진다, 나는 사라지는 내 몸뚱이를 바라본다	열대우림을 지나 초원을 빙빙 돈다
일곱 개의 차크라가 꿈틀거린다	나는 어디든 날 수 있는 새	대지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를 쫓아
회음, 피리뻑 마디마디 울라오	천개의 빛이 정수리를 파먹는다	젖은 겨드랑이를 펼치는 순간,
는 호흡	몸바이, 카브리해, 아프리카로	장산구만 남아 있는 나의 몸
상단전을 지나온 신열에 들뜬	날아간다	-박미산/시집<루영의 지도>에서
알갱이들		

화제의 불화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 할 불멸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

지나는 가정마다 평생 부귀 영화와 건강 장수하게 축원불공 마쳐!



규격 : 가로67cm 세로85cm

가정과 사업장의 재난과 액운을 쫓고 번영 보는순간 감탄 거실과 사업장에 걸면 품격

「세존이시여 무순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권세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귀의 액란에서 벗어나 건강장수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리게 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닌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할수 있다.」
(관세음보살품경에서)

속령만족제희구(速令滿足諸希求)<불경>
저희들의 온갖소원 허투루히 이루어고<해설>
수지신시광명당(受持身是光明幢)<불경>
법을모신 이 내몸은 큰 광명의 깃발이요<해설>
수지심시신통장(受持心是神通藏)<불경>
법을지닌 이 내 마음 신통력의 곳집이라<해설>
소원중심심원만(所願從心悉圓滿)<불경>
원하는 일 마음대로 모두다 이루어라<해설>
(천수경 경의 중에서)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백의 관세음보살의 밝은모습으로 무명의 어둠에 있는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사는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으로 부귀영화와 명예까지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조선시대 그려진것으로 우리나라 한집밖에 없는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造화백계서 기도속에 불력과 영험으로 재현해 판화한 영험의 명작으로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백의 수월관음도를 보는순간 누구나 감탄을 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최고급표구 액자와 100% 천연코튼판화지에 관화된 백의 수월관음도는 수백년이 지나도 변색되지 않게 베르린까지 처리한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충서와 가보로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특별선물 보궁여의주와 함께 안전하게 보내드리며 받으시면 삼배하면서 소원기도 한다는 소장인란에 서명하시고 거실 또는 사업장에 걸면됩니다. 가격245,000원 문의전화:(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문의환영) 농협: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불가능) http://club.cwworld.com/kapilla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불력!

- 여의주를 든 관음도는 가정번영을 약속!
- 여의주를 든 관음도는 사업성공을 약속!

보궁여의주 특별선물

여의주를 든 관음도와 인연이된분께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구입하시는 분자님께 한시적으로 보궁여의주 특별히 드립니다. 각종불경 해설서를 보면 제석천왕과 아수라가 싸울때 전륜성왕이 바위를 부술때에 남섬부주에서 떨어져 변한것이라고도 하고 용왕의 몸에서 나와 사람이 여의주를 집안에 두고 만 있어도 독이 해칠수 없고, 불속에 있어도 타지않고 누구와 경쟁을 해도 승리하며 권세와 명예를 얻는 공덕이 있는 구슬로 사갈라공공에도 있고 여의류공을 손에 두 들고있어 중생들이 뜻한바를 이루어지게 하는 관세음 부처님의 약속의 구슬입니다. 바다속 천연 녹색 원석으로 불교에서는 일명 용궁석이라하며 집안의 가보로 수험생이 있는 집에는 시험날 가방속에 넣고 시험장에 가면 지혜의 영험의 나타난다는 영험의 구슬입니다. 불가에서는 여의주를 영험의 보물로 인정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법구입니다.